

니카야서 길을 묻다 4. 계율 정신의 근원①

내 지계로 남 무시 말라

(持戒)

불교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공부거리' [삼학(三學)]에서 첫 번째가 계율이기 때문에 계율이 불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수긍할 것이다. 그렇지만 불교의 내용 중에서 의문점을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제기하기 어려운 것도 바로 계율이 아닐까 한다. 왜냐하면 문제점을 솔직하고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순간, 개인의 사생활에서 감추어 덮어 두고 싶은 행위들을 모조리 꺼내야 하기 때문이다.

“불살생(不殺生)을 지키려면 모기 한 마리로 죽이면 안 되나요?”

“적당히 술 마셔도 불음주(不飲酒) 계(戒)를 어긴 것일까요?”

이러한 유형의 의문문은 불교계 안팎

서 타협과 회피를 반복할 경우, 계율은 골치만 아프게 하는 존재가 되어 그 의미는 크게 상실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에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글자 그대로’ 혹은 ‘곧이곧대로’ 무조건 계율을 지켜야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떨까? 이처럼 계율지킴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이나 극단적인 평가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조금의 어긋남도 허용하지 않고 계율을 지키는 자세에서 불교인으로서의 굳건한 의지와 실천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불교적 삶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감히 평가조차 내리기 어려운 종교적 숭고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찬사가



그림 · 양경수

를 막론하고 한 번쯤은 질문 받거나 생각하게 되는 문제이다. 사생활이라는 은밀함의 측면에 더하여, 실제로 지키기 어려운 문제를 전제로 하는 현실적 인정이 계율 실천의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면모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테면 그것이 불살생 계(戒)라면, '나의 생존 추구'와 '남의 생존 추구'가 맞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때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계율지킴'의 엄격함을 슬그머니 내려놓는 지점이 생겨날 것이다. 끊임없이 과도한 광고를 내어 물건을 팔고 있는 어느 회사원이라면 당장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불망어(不妄語)'의 계(戒)와 정면으로 부딪치게 된다. 회사의 상사가 시켜서 했다거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아무리 늘어놓더라도 나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였다는 본질까지 외면할 수는 없을 터.

그저 예시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이와 같이 은밀함을 드러내야 하는 솔직함과 현실에 쉽게 타협했다는 자책을 애써 무시하거나 숨겨두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성숙을 위한 그 어떤 노력에 힘을 기울일 수 있을까? 현실을 인정하지는 입장에서 서

득한 긍정이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엄격한 태도 이면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폐쇄성을 비판하는 관점이다. '순수'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곳에는 좀 더 수준 높은 가치를 지향하는 열정만큼이나 그들이 추구하는 '순수'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다른 존재를 낮춰보는 시선이 있다는 것이다. 즉, 엄격한 그들이 '순수'를 강조하면 할수록 그들의 이상과 부합되지 않는 것들의 존재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끝내는 소용조차 하지 않으려는 '폐쇄적' 태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종교계에서 근본주의자들은 '순수', '엄격' 등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관점이나 태도를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생각이나 신념을 달리 하는 이들에 대한 적개심을 내비치는 장면도 자주 목격하게 된다는 점에서 근본적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계율은 자신의 끊임없는 성숙을 지향하는 수행의 밑천이지 오만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버림받은 아이들 보살핌 30년...

그대는 자비보살

김옥숙 (부산 지체장애인복지협의회장)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의 마음에 생긴 상처는 오래도록 남는다. 이런 생체기는 더 이상 사회를 믿지 못하게끔 한다. 추운 겨울의 얼음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따뜻하게 녹이는 이가 있다. 부산지역 소외아동들의 '대모'로 불리는 이, 바로 김옥숙(48·법운행) 부산지체장애인복지협의회장이다.

희망과 꿈의 수호자 되다

김 회장은 현재 그룹홈(옛 고아원) 아이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 김 회장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꿈'과 '희망'이다. 국가지원사항을 알려 주며 노력하고 고생하면 학업을 멈추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국가 지원으로 대학등록금이 나오는데도 아이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이를 알면서도 진학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사회생활에서 확률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례가 바로 김 회장의 막내딸 사연이었다. 2013년 새벽 무렵이었다. 김 회장은 부산 화명동의 PC방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한 아이를 찾기 위해서였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김미희(가명·21) 양이 불교기관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가톨릭계 고아원으로 옮긴지 얼마 되지 않아 기관에서 이탈한 것이었다. 반복되는 가출과 방황 속에서 김 양이 유일하게 연락을 취했던 이가 김옥숙 회장이다.

“미희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부산 기장의 한 사찰 앞에 버려졌습니다. 그 후 아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찰에서 지내어만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자신의 바람과는 반대로 기독교 시설로 들어가게 되며 방황하게 됩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버스에 그냥 치어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 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 회장은 가족들과 의논했다. 김 양이 가장 원하는 것이 일반 가정집에서 사는 것이었기에 직접 키우기로 결심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동의했다. 남편은 과제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친딸을 설득하는 일이었다. 결국 남편이 딸을 설득했다.

“막내 딸이 들어오며 우리 가족은 4명이 됐습니다. 딸들이 너무나 사이 좋게 지내고 있어요.”

김 회장은 입양한 딸을 키우는데 성심껏 노력했다. 김 양의 꿈이 디자인 전문가였기에 예술고등학교로 전학을 시켰다. 학원도 보내야 했다. 실습재료비 외에 학원비만 월 70만원에 달했다. 입시설비 비용만 500만원이 넘는 등 예술계 특성상 실습 등에 많은 비용이 소모됐지만 문제는 아니었다.

“남편이 조선소에서 큰 배의 녹을 벗겨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고된 수고에도 감당하기 벅



김옥숙 회장은... 1968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났다. 중학교 때부터 평화의집, 성광원, 무궁애학원 등에서 봉사하며 나눔 활동을 펼쳤다. 부산여대 사회복지과, 인제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김해 보현행원 요양원 및 다양한 복지단체에서 근무했다. 현재 지체장애인복지협의회 회장을 맡아 장애인들 위해 후원활동을 펼치며 방송통신대 불교동아리 하심회회장으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9년 시원재단에서 수여하는 우수사회복지사를 수상했다.

차진 했지만 한 아이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니 멈출 수가 없었어요. 빛을 내 교육을 시켰습니다. 결국 원하는 대학에 입학한 막내딸을 보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아친구 인연이 보살핌으로

이러한 김 회장의 활동은 학창시절 맺어진 작은 인연으로부터 시작됐다. 구포여중 1학년 때였다. 같은 반의 한 친구가 김 회장에게 '우표를 사달라'는 부탁을 자주 했다고 한다. 김 회장은 그 친구가 당시 고아원 '평화의 집'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한다.

“우표를 사달라라는 것이 같은 고아원에 살던 언니가 서울로 가 연락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편지를 보내야 하는데 우표를 살 돈이 없어 친구들에게 부탁했던 것이죠.”

그 친구와 친해진 김 회장은 매주 주말마다 용돈을 모아 군것질거리를 사 평화의집을 찾았다. 그곳에서 김 회장은 그들과 친술한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가 되었다.

당시 김 회장의 가정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다.

김 회장은 중학교 때부터 방학철이면 부산의 신발공장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스스로도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한 마음은 식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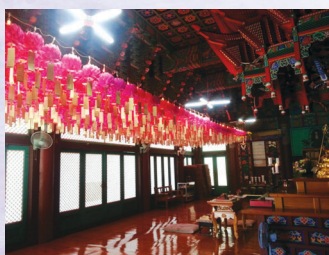
김 회장은 중학교를 마치고 어렵게 구포여중 야간 학교를 진학했다. 여기서 학교 친구들과 지인들을 모아 1985년 봉사 동아리 '동그라미'를 창단했다. 20여 명의 학생들이 모인 이 모임을 통해 김 회장은 더욱 활발하게 봉사 활동을 펼쳤다. 김 회장은 동그라미 회원들을 이끌고 '평화의 집'을 방문하고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평화의 집 근처에 의경들 숙소가 있었어요. 무턱대고 찾아가 체육대회를 하니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당혹했던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 그만큼 당당했던 것 같습니다.”

김 회장은 또 다른 고아원인 '성광원'도 매주 방문하는가 하면 장애인 시설인 '무궁애학원'도 빠짐없이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 회장은 청소년부터 나라 식사 보조 등 굶은이를 마다하지 않았다. 중증 장애인을 위한 나눔이, 합동결혼식 등 다양한 활동

사찰고급연등·자동승하강시설

시공전



시공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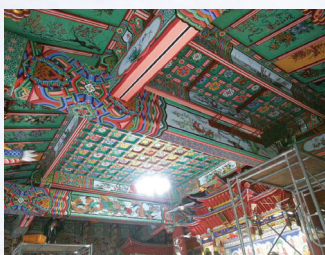


시공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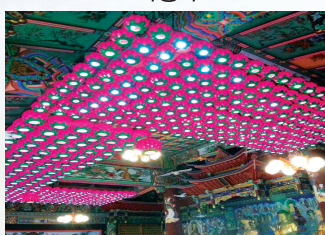


시공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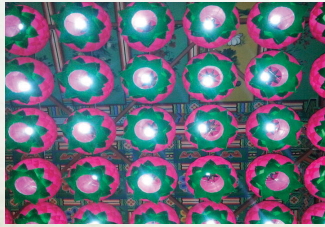
시공전



시공후



시공후



시공후

자동승하강장치 설명 |

자동승하강장치란 기존 또는 신축법당에 고정으로 설치된 연등에 맞게 프레임 제작하여 모터에 연결해 상하로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자동승하강장치의 장점 |

1. 발원등표 교체가 편리합니다.
2. 법당이 넓고 화려해보입니다.
3. 법당내 구조와 면적에 비례하여 프레임을 제작하기 때문에 연등의 오와 열 정렬이 확실합니다.
4.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후관리를 책임 집니다.
5. 아무나 조작할수 없도록 스위치에 잠금장치가 있으며 안전합니다.

2016연등특별공급(한정분)

모든 연등 8cm 기준 전국 어느 상점에서나 3,000원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가야자비연등 · 가야자비연등 6cm 줄등용

▶차걸이 · 연꽃차걸이/광명등연꽃차걸이

▶설화등 : 다홍, 연분홍 8cm

▶고급 칼라연등 : 보라, 다홍, 오렌지 8cm

▶가야 궁단등 : 다홍, 보라 8cm

▶비닐만일등

▶연등 및 각종 전선, LED 전구

가격 · 할인 · 예외 · 품목

* 궁단/실크/수입사등 : 진분홍, 개방형(오렌지), 일매형(다홍) 8cm

* 왕금등 : 8cm

* 자비연등 : 8cm



불교장엄용품전문 가야기획

※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상담하십시오.

“불교고아원 건립 평생의 꿈”

을 펼쳤다.
 “당시 그곳에서 만난 농아 아동과 소통하기 위해 수화를 배웠습니다. 이것이 토대가 돼 부산수화통역 자회에서도 활동했어요. 소외계층의 이들과는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결혼식 때 친인척이 없으니 주변인이 함께 동행 도와주는 등의 마음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방송통신대학 하심회로 포교활동

너무 늦지 않았던 가정환경에 김 회장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방송통신대학 중문과에 입학하고 불교동아리 하심회에 들어갔다. “학업을 쉬지 않았어요. 부산여대 사회복지과, 인제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과까지 저의 부족한 점을 메우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니다. 봉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전문성도 갖춰야 합니다. 봉사를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처음 공부를 다시 하기 위해 입학했던 곳이 방통대였어요. 방통대는 불교 활동을 통해 많은 도반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 왔습니다.”

침체됐던 하심회의 회장을 맡으면서 그녀는 프로그램을 개편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접근성을 높였으며 경전 공부를 강화했다. 산행과 정기 법회, 경전공부, 신입을 위한 기초교리, 참선 수행, 수계법회까지 진행했다. 다양한 활동으로 회원은 늘어갔다. “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들의 목적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처음에는 재미와 흥미에 맞게 그들을 이끌고 나중에는 최종 목표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도반으로 함께 성장하는 것이죠.”

장애인 위한 손발 되다

이러 1989년 김 회장은 지체장애인복지협의회(이하 지복회)에 들어갔다. 그 때 당시 지복회는 수많은 민간 봉사 단체와 협력해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고 있었다. 여기서 김 회장은 자녀들에게도 나눔의 기쁨을 알게 하는데 노력했다. “지복회 투(Two)라고도 합니다. 저희가 나이가 많아졌지만 자녀들은 저희의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모임을 만들고 자신들의 역할을 찾고 있어요. 돈이 많아지면 부자는 아니잖아요. 자녀들에게 마음이 부자여야 부자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훌륭

한 가르침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요.”

김 회장은 1993년 어린이집을 직접 차렸다. 보통의 어린이집이 아니었다. 20여 아동 중 장애아동이 5명이었다.

물론 일반가정의 학부모들은 반대가 심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장애아동을 꾸준히 선발했다.

“어떤 부모님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 아이를 장애아동과 똑같이 취급하냐 구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어린이집을 나가서도 좋다고 합니다. 일반 아동은 나가도 다른 어린이집이 있지만 장애아동은 없잖아요. 장애아동을 받아주는 곳이 없다면 그 부모가 일을 하지 못해 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할 게 뻔하죠. 이런 절박한 심정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일반가정의 학부모들도 받아들였습니다.”

중1 당시 고아친구 만나며 발심 평화의집 · 성광원 등 고아원 봉사 장애아동 위한 어린이집도 운영 “꿈과 희망 잃지 않게 도와줘야”

“나중에는 먼저 고맙다고도 합니다. 자녀들이 장애인을 보고 거부감 없이 평등하게 대하고 또 배려하는 모습에 놀란 것이죠. 저절로 심성교육이 되니 평이 좋았습니다.”

신심어린 기도가 나눔활동 근원

김 회장은 이런 다양한 나눔활동의 원동력을 신심에서 찾고 있다. 18세 때부터 불자가 된 김 회장은 고등학교 졸업 후 삼광사 청년회 활동을 시작하며 매일 기도를 하고 있다. 직장생활 중에도 새벽기도를 빼먹지 않았다.

“1993년에는 아버지가 편찮으셨어요. 병원에서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간신히 숨을 쉬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가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간에 암도 있으셨고 폐도 폐 기능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범어서 청련암 양의 스님을 찾아가 스님이 일러주는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 때 알았죠. 남을 위한 기도가 오

려려 나를 가깝고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요.”

김 회장은 이런 편안한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설명했다. 사망선고를 기다리던 김 회장의 아버님도 김 회장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 점차 기운을 차렸다. 그렇게 10년을 더 건강하게 사셨다.

“결국 작은 마음의 변화가 큰 변화를 이끕니다. 직장을 다녀와 기도하면서 직장생활도 순탄해졌어요.”

3번의 수술, 아픔도 겪지 못한 나눔

김 회장은 2010년 큰 수술을 했다. 부인병이 생긴 것이다. 자궁에 3번의 수술을 했지만 2015년 재발했다. 골반까지 복수가 차고 근중도 발견됐다. 심장에 두 구멍이 나는 ‘선천성심방중격결손’도 발견됐다. 게다가 2013년에는 음주운전자 사고는 차량에 치여 왼쪽 팔과 다리의 거동이 힘들어졌다.

“건강이 악화돼 지난해에는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도반과 고아원 활동 당시 만났던 친구, 그리고 아이들 소식을 계속 받고 있어요. 이들을 위한 후원활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아동을 데리고 어렵게 사는 할머니 집이 화재로 타들 때 아픈 몸을 이끌고 직접 모금했다. 지금도 쌀을 전달하며 그들을 후원 중이다.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그룹홈을 만들 것입니다. 현재 경남에 30여개의 그룹홈이 있지만 불교에서 운영하는 그룹홈은 고작 2개입니다.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러 갈 때 당시 교수님이 저를 향해 기록교를 믿느냐고 하던 것 같다고 대답하러던군요. 그래야 취업이 된다고요. 복지를 위해 불교는 더욱 뛰어야 합니다.”

그녀는 현재 고아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혼으로 인한 결혼 가정은 고아가 아닌 고아로 버려진다면 안타까워했다.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 진심함과 따뜻함이 넘치는 가정을 선물하고 싶다고 했다.

추운 겨울을 집을 향해 뛰어가는 아이들이 보인다. 부족한 그대로 그들을 안아주는 진실한 사랑이 기다리는 집은 보금자리가 되어 그들을 품는다. 버림 받은 상처까지 기꺼이 품어줄 김옥숙 회장의 넓은 품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녹이는 훈훈함으로 널리 퍼지길 바란다.

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전법일기

스님, 저는 살아야겠습니다

20년 전 여주에서 사찰음식을 강의할 때 한 내과의사가 찾아왔다. 젊고 유능한 의사가 서울에서 먼 거리를 마다않고 달려온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환자들이 식단만 바뀌도 병세가 좋아지는 것을 보고 직접 요리법을 배워 알려주고 싶다고 했다. 진찰과 약 처방으로 이미 의사의 본분을 다한 것인데, 나는 환자 편에서 생각하는 그가 미덥고 고맙았다. 그가 말했다.

“스님 강의를 듣고 나니 요리법보다 음식의 중요성을 환자들에게 알려줘야겠습니다. 병이 나기 전에 스스로 몸을 지키도록 돕는 게 의사의 제가 할 임임을 깨달았습니다.”

순간 ‘스스로 몸을 지키다’는 그의 말이 마음에 박혔다. 스스로 아는 것, 바로

말했다.

“지금부터는 나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자식노릇, 엄마노릇 잠시 접어주세요. 내가 먹어야 할 음식이 무엇인지 스스로 공부하고 요리해서 드세요. 나에게 맞는 음식을 먹어야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병이 찾아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부터 그 병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가족은 별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 가족은 다시 나를 찾아왔다. 아이 엄마의 얼굴에 한결 화색이 들었다. 남편도 여유가 있어 보였다. 지난번엔 묻는 말에 겨우 대답만 하던 아이 엄마가 먼저 말했다.



그림 · 박구원

‘자각(自覺)’이다. 자각이 없다면 그 무엇도 바꾸지 못한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법을 찾고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변화할 수 있다.

사찰음식의 궁극적 목표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진리를 깨우치도록 돕는 데 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나와 하나이다. 물도 공기도 나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물과 공기, 흙의 기운으로 만들어졌으니, 그것들이 병들면 나도 아프다. 사람들은 처음에 몸의 건강을 위해 사찰음식을 배우지만,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다’는 불교의 연기법(緣起法)을 깨닫게 되면서 차츰 건강한 마음을 갖게 이른다. 이를 통해 자기 삶이 바뀌고 가족과 이웃, 주위 사람들까지 변하게 만든다. 한 사람의 자각이 세상을 바꾸는 이치는 얼마나 아름다운 연기인가.

어느 해 한 가족이 나를 찾아왔다. 담도 암에 걸린 젊은 여인과 시어머니, 남편과 어린 두 딸이었다. 어머니는 “스님, 제 딸을 살려주세요” 하면서 눈물부터 쏟았다. 두 아이는 풀죽은 얼굴로 엄마의 팔을 연신 주물러댔다. 나는 남편 어깨에 힘없이 기대어 앉아 있는 아이엄마에게

“스님 말씀대로 힘들지만, 제가 먹어야 할 음식을 직접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입맛도 돌아오고 힘이 났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니 아이들이 신이 나서 까불러더군요. 그 아이들을 보니 살아야겠구나, 싶었습니다. 스님, 저는 살아야겠습니다.”

병원에서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당장 죽을 듯했는데, 생각을 고쳐먹으니 어마어마한 삶의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암마마빠가 밝아지자 아이들도 달라졌다.

“암을 밀어내지 마세요. 병도 인연입니다. 하루아침에 병이 낫는 것을 바라지 말고 이 정도로 유지하겠다고 생각하세요. 나를 찾아온 병 때문에 가족의 소중함과 더없는 행복을 알게 된 만큼, 지금 삶을 사랑하도록 하세요.”

부부는 불기어린 눈빛으로 마주보았다. 내가 해준 것은 말 몇 마디뿐이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은 스스로 찾아내고 움직여야 한다. 자각이 없다면 부처님, 하느님 말씀도 한낱 종잇장에 불과하다.

선재 스님(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



방송통신대 하심회 신입생 모집에 나섰던 김옥숙 회장.



평화의 집 원우들과 체육대회를 하는 모습.



김옥숙 회장의 가족사진. 30년 넘은 봉사에는 가족의 성원이 큰 힘이 됐다.

JJUN Heating System Module

“**전**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이점

-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 04 D.I.Y 시공 가능
-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 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공 대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 지역 대리점 [10월 현재]

www.jjunheating.co.kr

서울 : 010-5097-8291
 부산 : 010-2310-0404
 인천 : 010-5759-8804
 광주 : 010-9183-9729
 대전 : 010-7526-3300
 안산 : 010-2487-3393
 울산 : 010-2043-4336

화성 : 010-3168-9250
 기흥 : 010-8378-3375
 용인 : 010-9807-4862
 광주 : 010-6890-0365
 여수 : 010-3612-7784
 익산 : 010-6610-2337
 김천 : 010-9091-4583

대구 : 010-3259-3520
 울산 : 010-4597-5577
 진주 : 010-3583-7139
 양산 : 010-6294-6126
 통영 : 010-3592-2447
 고성 : 010-4578-0961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 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안로 61(영화동)

사찰연등 및 전선 [별당응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동간격·규격참조

실지가 편리한 고리형 추크

고추구 12E 3구, 4구 인지구 26E 4구, 5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형)

노원(노원지) 진문종 연문종 탁색 금색

연등규격 : 4m, 6m, 7m, 8m, 10.5m, 13m, 20m, 30cm

제등앵달 용품

일지형 S형 T받이형

LED바시형 LED홀바시형 건전지 초

▶ 방생, 탐방, 각종 행사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